

중국 관광업계 동향[26년 6월 2차]

□ 중국 정부 정책

- 국무원 신문 판공실 <국가 인권 행동 계획(2026-2030년)> 발표
 - 국무원 신문 판공실이 6월 11일 <국가 인권 행동 계획(2026-2030년)>을 발표함. 그 중 문화 관광 관련 내용은 ▲고품질 관광 상품 공급의 다양화-관광지의 혁신적 발전 추진, 리조트 품질 향상, 레저·휴가 상품, 특색 관광 상품 및 우수 관광 서비스 브랜드 육성 ▲관광 공공 서비스 개선-전 과정에 걸쳐 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
-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4개 부처 <해양 경제 발전 지원 취업창업 촉진에 관한 공고> 공통 발표
 - 인력자원사회보장부, 자연자원부, 재정부 및 교통운수부 총 4개 부처는 6월 16일 <해양 경제 발전 지원 취업창업 촉진에 관한 공고>를 발표함. 그 중 문화 관광 관련 내용은 ▲고품질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, 해안 관광, 크루즈·요트, 레저 어업 등 관광 업태를 중심으로 수중 사진가, 크루즈 승무원 등 일자리 창출 ▲연안 지역 실정에 맞게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해양 문화·관광 융합 발전촉진

□ 통계 분석 및 예측

- 2026년 단오절 연휴기간(6.19~6.21) 출입국 666.7만 명, 국내 관광 1.24억 명
 - (중국국가이민관리국) 2026년 단오절 연휴(6.19~6.21) 기간 출입국 인원은 총 666.7만 명, 하루 평균 222.2만 명으로 지난해 단오절 연휴 기간 대비 12.9% 증가. 일일 출입국 최고 기록은 6월 20일에 230.8만 명 기록. 이 중 중국 내륙 주민의 출입국은 292.1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.5% 증가, 홍콩·마카오·대만 주민의 출입국은 296.9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.4% 증가. 외국인 출입국자는 77.7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.3% 증가, 입국 외국인 중 무비자 정책을 적용받아 입국한 인원은 26.6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.2% 증가

- (중국문화여유부) 문화여유부 데이터센터 추산에 따르면, 단오절 연휴 3일간 전국 국내 관광객 수는 1.24억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.4% 증가. 국내 관광 총 지출액은 444.56억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4.0% 증가

○ 중국민항국, 2026년 5월 민항 국제선 여객 운송량 6426만 명

- 2026년 5월 민항 여객 운송량은 5,912.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.1% 감소 이 중 민항 국내선 여객 운송량은 5,27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% 감소, 국제선 여객 운송량은 642.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3% 증가.

○ 중국국가데이터국 : 중국 온라인 여행 예약 사용자 규모 5.15억 명

- 중국국가데이터국이 <디지털 중국 발전 보고서(2025년)>를 발표. 보고서에 따르면, 2025년 말 기준 중국의 온라인 여행 예약 사용자 규모는 5.15억 명으로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45.8%를 차지했음.

□ 경쟁국/지역 · 기타 동향

○ (일본) 중국인 일본 방문객 6개월 연속 급감

- 2026년 5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55.9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.6% 감소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. 이 중 중국인 일본 관광객은 31.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.4% 감소하며 6개월 연속 큰 폭으로 하락.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방일 관광객은 171.7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.2% 감소
- 일본 정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입국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. 단수 입국 비자(Single-entry visa) 수수료는 현재 3,000엔에서 15,000엔으로, 복수 입국 비자(Multiple-entry visa) 수수료는 현재 6,000엔에서 30,000엔으로 각각 인상되며, 이는 기존 수수료의 5배에 해당. 이는 1978년 이후 최초의 인상 조치